

골레

1. 태호 집/밤

모두가 잠든 듯 불 꺼진 집안
키보드 타이핑 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이 새 나오는 방

2. 태호 방/밤

모니터 불빛이 광원의 전부인 어두운 방안.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1시에 멈춰있다.
반바지에 런닝 차림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에 몰입하고 있는 태호
머리에는 방음 귀덮개, 손목에는 아대를 하고 있다.
어깨 너머로 보이는 모니터 화면에는 문서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고,
화면에는 글들이 채워지고 있다.
창문도 굳게 닫힌 방안에서 한동안 태호가 치는 타이핑 소리와 컴퓨터 팬 소리만 울린다.

태호 (손목과 어깨를 비틀며) 아...

귀마개를 벗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태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다가
건전지를 빼준 걸 기억하곤 책상 위 스마트폰을 눌러 시간을 확인한다.

오전 02: 23

마우스를 잡고 그동안 적은 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며 휠을 속속 돌려보는 태호
책상에 놓인 카드와 휴대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3. 아파트 입구/밤

반바지에 런닝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아파트 입구로 걸어 나오는 태호

4. 버스정류장 앞/밤

담배를 피우며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터덜터덜 걸어가는 태호

5. 편의점/밤

문에 매달린 종소리와 함께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태호.
계산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편의점 직원(만옥)이 인사를 한다.
만옥의 인사에 반응하지 않은 채 음료 냉장고로 향한 태호.
에너지 음료 칸을 보다가 1+1이 적힌 음료 2캔을 꺼내 계산대로 이동한다.
계산대에 놓인 음료 2캔
자리에서 일어난 만옥이 무심하게 스캐너로 음료수를 찍는다.

만옥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니

대답 없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포스기에 꽂는 태호
결제 소리와 함께 카드와 음료수를 챙긴 태호가 편의점을 나선다.

태호 갈게요.

만옥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6. 버스정류장 앞/밤

버스정류장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태호
여느 달동네가 그렇듯 가파른 언덕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이 보인다.
핸드폰을 보는 태호
카톡 작가 단톡방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알림 표시가 쌓여있다.

카톡1 김태민 작각님, 베스트셀러 선정 축하드립니다.

카톡2 축하드립니다.

...

카톡10 와...축하드립니다.

김태민 축하 감사합니다.

처음 쓴 글이라 자신이 없었는데 베스트셀러까지 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채팅창에 출간 축하드립니다를 타이핑 하는 태호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만 쳐다보다 글을 모두 지운다.
그리고 김태민이 쓴 글에 엄지척 하나만 표시한다.
핸드폰을 끄고 다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태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는데, 카톡이 울린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도록 탭만 내려서 글을 확인하는 태호

카톡(엄마) 잠은자가면서하거라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터덜터덜 집으로 향한다

7. 태호 집 거실/정오(비)

헝한 거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열린 방문 너머로 나가기 위해 옷을 챙겨입는 만옥이 보인다.

8. 태호 방/낮(비)

방문을 두드리고 만옥이 조심스레 문을 연다.

만옥 태호아, 엄마 일하러 가니까 식탁에 차려진 밥 챙겨 먹어라

반응이 없는 태호

그런 태호를 잠시 바라본 만옥은 방문을 닫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눈을 뜨는 태호

팔을 이마에 올린 채 한숨을 쉰다

9. 태호 방/낮(비)

컴퓨터 앞에 앉은 태호

모니터 화면에는 스토리 공모전 결과 발표 게시물이 보인다.

긴장된 표정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태호

수상작 목록에 자신의 작품이 없다.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는 태호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태호

저... '스토리 공모전' 담당자세요?

수상작 때문에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장려상 수상작에 있는 '검은 손'요.

제가 그 작가를 아는데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게 장려상을 받았는데 제 글이 떨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되요.

아니면 AI로 글을 썼던가요.

이거 AI 쓰면 안 되는 공모전이잖아요.

이렇게 AI로 쓴 글이 수상을 하면 직접 글을 쓴 저 같은 작가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저 말고 다른 작가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온 태호

식탁 위에 차려진 밥을 한 번 바라보고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간다.

10. 아파트 앞/낮(비)

우산을 쓰고 담배를 피우는 태호

떨어진 곳에 학교 정문과 그 앞에 비옷을 입은 채
교통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만옥이 작게 보인다.
만옥을 잠시 바라보면 태호는 어디론가 걸어간다.

11. 오래된 동네서점 앞/낮(비)

오래된 동네서점 앞에 서 있는 태호.
태호 앞 창문엔 빛바랜 프린트물이 붙어 있다.
A4용지로 출력한 프린트물은 오랫동안 붙어 있어 너덜너덜하다.

- 신춘문에 수상자 김태호 작가 '꿈꾸는 이야기' 입고 -

가장 잘 보이는 정면에는 오늘 막 붙인 듯한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선정 베스트셀러 김태민 작가 '낙월' 입고 -

비 내리는 서점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는 태호

12. 태호 집/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태호.
우산을 옆에 세워두고 자신의 방으로 이동한다.
식탁을 치우다 그런 태호를 본 만옥이 태호에게 말을 건다.
문고리에 손을 잡을 채 멈춰선 태호

만옥 태민이 방금 나갔는데 못 봤니

태호 못 봤어요

만옥 밥은 먹었고?
 안 먹었으면 먹고 들어가

태호 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옥이 말을 잇는다.

만옥 다음 주 금요일에 민정이 부모님이랑 상견례 하기로 했다.
 그날 다른 약속 잡지 말고

태호 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태호
만족은 달힌 방문을 보며 한숨을 쉰다.

13. 태호 방/밤

책상 위에 못 보던 봉투가 놓여있다.
봉투 겉면에 사인펜으로 김태호님이라고 적혀 있다.

열어본 봉투에선 김태민 작가의 책 '낙원'이 나온다.
책의 앞장을 들춰보지만 적혀 있지 않다

책상 한 쪽에 책을 놓아둔 태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방음 귀덮개, 아대를 착용하고 어제 적던 한글 파일을 다시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글자 뒤로 몇 글자를 더 적다가 멈추는 태호.
마우스를 움직여 인터넷 창을 실행한 후 AI 사이트로 들어간다.

깜박거리는 AI 질문창.
태호는 거기에 질문을 입력한다.

- 신인 작가 중에서 가장 늦은 나이에 등단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한국에서 늦은 나이에 작가로 큰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AI가 답하는 내용을 읽는 태호.
네이버에 피에르 르메트르와 김훈 작가를 검색해 본다.

인터넷 창을 종료하고 다시 적던 글로 옮겨가는 태호.
그런 태호의 뒷모습과 타이핑 소리만 화면을 가득 채운다. 끝.